

겸손과 눈물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20:14-21)

바울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 서둘러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동 경로상 에베소가 가까웠으나 들을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바울은 3년 동안 눈물로 사역했던 에베소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밀레도 항구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장로들은 약 40에서 50킬로미터 거리를 걸어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밀레도에서의 만남은 바울이 자유인으로서 남긴 마지막 설교의 자리였습니다. 또한 신자들을 향해 남긴 유일한 고별 설교이기도 했습니다. 장로들은 길거리와 각 집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회심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두란노서원에서 양육을 받고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을 겪을 것을 직감했습니다. 다시는 에베소로 돌아오지 못할 운명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연과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장로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자신이 아시아에 머무는 동안 일관되게 보여준 삶을 기억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사역의 핵심은 모든 겸손과 눈물이었습니다. 성도와 지도자에게 가장 필수적인 덕목 역시 모든 겸손과 눈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외모와 뛰어난 실력을 갖추면 좋은 사람이 된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겸손이 없으면 다른 이들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남을 돕는 선행을 하더라도 겸손이 결여되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바울은 모든 일과 모든 사람에게 온전한 겸손을 보였습니다. 참된 겸손은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배워야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스스로를 낮추는 태도를 겸손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자기를 낮추는 행위에는 불순한 동기가 섞이기 쉽습니다. 권력이나 이득을 얻기 위해 겉으로만 몸을 낮추는 것은 위선입니다. 성경은 이를 “꾸며낸 겸손”

이라고 경고합니다. 겉으로 겸손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교만한 태도도 존재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말주변이 없고 능력이 부족하다며 사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겸손으로 여길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이었습니다. 자신의 한계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겸손은 자기 인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으로 마음을 채우는 태도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무기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의 이름에 기대어 골리앗에 맞섰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참된 겸손입니다. 교만과 겸손의 기준은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부와 가문을 의지하는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이 겸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해도 교만할 수 있고 부유해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결국 겸손이란 내 인생의 주인공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한 것은 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십자가의 길을 따른 삶을 가리켰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낮추는 데만 머무르면 여전히 내가 주인공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며 오직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겸손한 자, 하나님 중심으로 주인공이 바뀐 사람에게서는 반드시 눈물이 흐르게 됩니다. 본래 사도 바울은 차갑고 냉정하며 성격이 거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뒤 눈물의 사역자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염려하는 넘치는 사랑 때문에 밤낮 쉬지 않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며 비난하는 자들을 마주할 때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멸망으로 치닫는 영혼들이 불쌍하여 멈출 수 없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세상의 위대한 문학과 사랑 이야기를 잘 보십시오. 항상 비극과 아픔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도 성도의 삶을 아름다운 결작으로 빚으실 때 광야와 고통을 배경으로 살게 하십니다. 고난의 배경이 없다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무감각한 세대를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반응하지 못하고 팔짱만 낀 채 관망하는 태도는 영적인 메마름입니다.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사람은 잔인해지고 무자비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타인의 아픔을 느끼는 눈물을 주십니다. 반면에 사탄은 마음을 무디게 만들어 눈물을 마르게 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성숙은 온전한 성도의 교제인 코이노니아를 통해 완성됩니다. 코이노니아의 어원은 코이노스입니다. 함께 통용하고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뜻을 지닙니다. 동시에 이 단어는 부정확한 손처럼 때가 묻는다는 의미도 함께 내포합니다. 물건을 함께 쓰면 자연스럽게 손때가 묻고 더러워지는 법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교제 역시 즐거운 친교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의 연약함과 허물의 때가 내게 묻는 과정을 동반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하시기 위해 스스로 낮아져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셨습니다. 주님의 교제 안에는 온전한 겸손과 눈물과 십자가의 희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회는 성숙한 사람과 연약한 사람이 한데 섞여 있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부대끼며 상처를 입고 남의 때가 묻어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친 현실 속에서 함께 울고 아파하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갑니다. 겸손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거룩한 결단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는 아픔을 통해 깊은 눈물을 배웁니다. 우리는 모든 겸손과 눈물로 서로를 품으며 주님을 섬기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